

# 동양의 연월일시 궁위 인식에 관한 고찰

신순옥, 나혁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A Study on the Gungwi Perception of Year, Month, Day and Hour in the East

Sun-Ok Shin, Hyeok-Jin Na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궁위 인식에 대한 학술적 지위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근묘화실로 비유되는 궁위론, 즉 연월일시의 상징성은 단순한 통변의 기술이 아니다. 사주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명리 원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학술적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구하였다. 사주를 구성하는 내재적 사상은 음양오행이며, 기록하는 글자는 십간십이지이고, 시공의 자리를 담당하는 요소는 천간, 지지 그리고 4개의 기둥으로 엮인 궁위(宮位)이다. 이번 궁위 인식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인간이 탄생하는 시점, 즉 우주의 에너지가 뇌와 온몸에 포맷되는 그 순간에 과거의 시간과 정보가 시간의 점을 통과하고 스펙트럼처럼 확산되며 미래의 시간과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시간의 스펙트럼' 현상을 궁위론의 근거로 제시해 보았다. 임철초가 '원형이정'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한 선·후천팔괘의 변화 포인트와 현대 우주론 중 하나인 평행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현재를 투과하고 있는 두 원뿔형의 시간 변화 혹은 왜곡이 미래의 우주에 잔상을 남긴다는 가정을 궁위론의 연역적 근거로 삼아 논의해 보았다.

**주제어** : 궁위론, 연월일시, 근묘화실, 원형이정, 평행우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tore the academic status of Gungwi perception a little. The symbolism of Gungwi, or Year Month Day Hour, likened to Geun Myo Hwa Sil, is not just a technique of interpretation. Recognizing that it corresponds to Saju's most fundamental Mingli principle, the study was conducted to the effect that more academ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e intrinsic idea that constitutes Saju is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 letters recorded are twelve-dimensional, and the elements in charge of the space and time are Cheongan, Jeeji, and Gungwi, which are woven into four pillars. Through this consideration of Gungwi's perception, we presented the "spectrum of time" phenomenon that past time and information pass through the point of time, spread like a spectrum, and lead future time and action at the time when humans are born, that is, the energy of the universe is formatted throughout the brain and body. We discussed the change point of Eight Trigrams used by Lim Cheol Cho as a basis for explaining 'Won Hyong I Jeong' and the assumption that the time change or distortion of the two cones penetrating the present, which is assumed in parallel theory, one of the modern cosmologies, leaves an afterimage in the future universe as Gungwi's deductive basis.

**Key Words** : Gungwi, Year Month Day Hour, Geun Myo Hwa Sil, Won Hyeong I Jeong, Parallel Universe

Received 05 Dec 2023, Revised 03 Jan 2024  
Accepted 08 Jan 2024  
Corresponding Author: Sun-Ok Shi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leif3713@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동양에서 출생 연월일시 시간의 흐름을 논의하는 것을 궁위론(宮位論)이라고 한다. 이 논의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근묘화실(根苗花實)이다. 근묘화실의 뜻은 글자 그대로 뿌리, 줄기, 꽃, 열매를 뜻하는 것이다. 시간을 육십갑자로 기록할 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나누고 연주를 뿌리에 비유하고, 월주를 줄기에, 일주를 꽃에, 시주를 열매에 비유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명리학에서는 근묘화실(根苗花實)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반면 성리학적 우주론에서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한다. 이는 『주역(周易)』의 <건괘(乾卦)>편에서 “건은 원형이정이다.(乾元亨利貞)”[1]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두 용어가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유사하여 자주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 소고에서 궁위 인식에 관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궁위론에 대한 학술적 지위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궁위론에 대하여 학계 및 일반인들은 모두 단순한 스토리텔링의 한가지 유용한 방법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성엽(2013)은 궁위론을 연구하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실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론과 검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주명리에서의 음양오행은 어떻게 응용하고,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응용하여 해석할 것인가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중략)… 각각의 이론들이 사주의 궁위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 객관적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주명리의 종합적인 해석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2]고 하였다. 학술적 연구자들조차 궁위론을 시간과 공간을 응용하여 해석하는 방법 혹은 명리의 종합적 해석 방법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주는 뿌리에 해당하여 초년운이자 조상과 선대의 가풍을 알아본다. 연의 간지에 기신 혹은 흉신이 있으면 조부가 생활이 어렵고 고생하였을 것이라고 하며, 연월이 상생하고 희운신이 있으면 아버지가 좋은 집안사람이고 본인도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통변한다. 그러나 근묘화실로 비유되는 궁위론, 즉 연월일시의 상징성은 단순한 통변의 기술이 아니다. 사주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명리 원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학술적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고찰을 시작한다.

## 2. 궁위론의 논의와 발전과정

### 2.1 궁위(宮位)의 개념

궁위의 궁(宮)은 집을 뜻하며 위(位)는 자리를 뜻한다. 사주의 천간과 지지로 구분되는 공간적 위치와 사주의 연월일시 4분위로 구분되는 시간적 위치를 통합적으로 상정하고, 각각의 십간십이지가 차지하고 있는 ‘집의 자리’를 의미한다. 궁위는 사주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각 위치에 따른 십성을 배정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궁위에 의한 사주명리의 해석은 오행과 십성에 대한 최종적인 소재(所在)와 기세(氣勢)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하였다.[2]

상하로 구분되는 공간적 위치로서 천간은 양(陽)으로서 기(氣), 상(象), 용(用)에 해당하고, 지지는 음(陰)으로서 질(質), 형(形), 체(體)에 해당한다.[3] 음양오행론과 십간십이지론의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준거는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시간의 개념을 내포한 연월일시 시간적 위치에 관한 개념의 준거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실 명리학의 많은 고전에서 4분위 시간적 위치, 즉 궁위의 시간적 개념에 대한 준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글이 없다. 명리학 고전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연월일시의 시간적 궁위에 대한 개념은 나무에 비유하여 연주는 조상과 가문의 궁위이고, 월주는 부모 형제의 궁위이고, 일주는 자신과 배우자에 해당하는 궁위이고, 생시는 자녀와 후손의 궁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 명리학에서는 일간이 자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사주의 각 기둥에 따라 자신과 가까운 육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한 사람의 생로병사에 따른 일생 시간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한편 대인관계에 따른 인물의 구분, 가정이나 사회생활 공간에 대한 구분, 오장육부와 사지에 대한 신체적 구분,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소재에 대한 구분, 사건이나 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등 다양한 유형의 상(象)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현대명리학계의 대표학자인 이석영(李錫暎) 선생이 정리해 놓은 궁위의 개념은 아래 <표 1>과 같다.[4]

〈표 1〉 사주원리도(四柱原理圖)

時	日	月	年
실(實)	화(花)	묘(苗)	근(根)
처자	자신, 처	부모, 형제	선조
2세	가정	사회	조국
부하, 사환	자신	과국장	기관장
문정(門庭)	주방(廚房)	후원(後園)	택묘(宅墓)
도로(道路)	아가(我家)	인근(鄰近)	본동(本洞)
입체(立體)	면(面)	선(線)	점(點)
미래	현재	과거현재	과거
혈(血)	피(皮)	골(骨)	영(影)
부하(部下)	신(臣)	붕우(朋友)	군(君)
정(貞)	이(利)	형(亨)	원(元)

하지만 궁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천체의 변화규칙에 따른 시간개념의 정립과 십간십이지를 연월일시에 배속하여 사용한 역법의 정립 사이의 선후 관계이다. 두 가지 사건의 선후 관계는 분명 시간개념의 정립이 우선이며 십간십이지의 배속은 역법(曆法)의 발달과정에서 인위적 주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 2.2 『이허증명서』의 궁위론

명리학 고전 중 <귀곡자유문>의 주석서인 『이허증명서』는 명리학의 가장 초기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허증명서』에서 삼원(三元)에 대한 해석을 실어놓은 부분에서 천간과 지지에 대한 궁위 해석법을 적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의 원명의 승부가 달린 三元은 간록, 지명, 납음신인데, 각각 쇠왕의 자리로 구분하여 논한다. 干은 명예, 재록, 부귀, 권세를 주관하니 의식과 받아서 누리는 이로움의 기초가 되며, 支는 금전과 주옥과 부를 쌓는 것을 주관하니 성공과 성패, 영고성쇠의 근본이 되며, 納音은 재주와 능력과 기량과 식견을 주관하니 인륜과 친속의 근본이 된다.[5]

『이허증명서』에서는 ‘태월일시’를 四柱로 삼고 ‘년’은 본이라 하고 ‘일’은 주라고 하며 사주체의 명리를 살피는

간명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자평명리학에서 연월일시 궁위론과 비교하여 살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본(年本)이 태월(胎月)과 함께 쓰였고 태월을 연본의 길목으로 삼은 것이니 시간적 궁위를 살피는 데 참고할 만하다.

사주는 태월일시이다. 胎는 부모와 조상을 주관하는 것이 십분이고, 일을 주관하는 것이 이분이며, 月은 사시의 기를 주관하는 것이 십분이고 일을 주관하는 것이 육분이며, 日은 기를 얻지 못함을 주관하는 것이 십분이고 일을 주관하는 것이 팔분이며, 時는 용도, 나아가고 물러남, 향하고 등짐, 역량과 기력, 성공과 성패 등을 주관하는 것이 모두 십분인데 길한 것과 흉한 것이 모두 같다.[5]

대체로 年이 근본이 되고, 日은 命主가 되며, 月은 사자, 時는 보좌가 된다. [年은 일의 근본이고 日은 명의 주체이니, 예컨대 군주에게 신하가 있고 아버지에게 자식이 있고 남편에게 아내가 있고 나라에 왕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것은 胎月과 生時가 주와 본의 부조자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마땅히 차례대로 서로 받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5]

年의 부원(扶援)이 된다고 한 胎를 부모와 조상으로 삼고, 月은 계절의 기운으로 삼고, 日은 계절의 향배를 살피고, 時는 용도, 퇴진, 향배, 역기, 승패를 살핀다고 하였다. 풀이하고 있는 어휘는 사뭇 다르지만 자평명리학의 연월일시 궁위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천간지지의 궁위는 삼원이 만물의 근본이라 하였고, 天地人 삼원사상에서 천간과 지지의 궁위 개념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주는 오행의 보좌이며, 천지에 춘하추동 사시가 있고, 하늘에 일월성신의 사상이 있고, 인간에게는 사지가 있다고 하였고, 근묘화실의 원리가 사주(四柱), 사시(四時), 사상(四象), 사지(四肢)의 원리와 같다고 이허증은 주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허증이 궁위론의 근거를 고민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2.3 『낙록자삼명소식부주』의 궁위론

『낙록자삼명소식부주』의 원 저자는 책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낙록자이다. 『삼명통회』에 “기원개출어전국낙록자(其源蓋出於戰國珞珠子)”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낙록

자가 전국시대의 인물이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히는 누구인지 언제 살던 사람인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양(梁)의 소명태자라는 설, ② 주(周)의 세자진(晉)이라는 설, ③ 남북조시대의 도홍경(陶弘景)이라는 설, ④ 서자평(徐子平)이라는 설 ⑤ 석담영(釋曇瑩)이라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다. 『낙록자삼명소식부주』라는 서명(書名)으로 후대에 널리 알려졌지만, 이 책 이름은 주석서의 명칭이다. 원 서명은 <소식부>, 혹은 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낙록자부>라고도 한다. 주석 작업도 3차례나 이루어졌고, 3차례의 주석을 한 이들은 ① 서자평 ② 왕정광·이동·석담영 ③ 만민영이다. 고법과 신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자평의 주석서가 많이 읽히고 위 주석서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고전에 기록된 궁위론에 관한 내용이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책에서 근묘화실(根苗花實)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혹 태어남에 있어 휴폐(休敗)의 땅을 만나면 어려서 외롭고 곤궁하며, 늙어서 건왕(建旺)의 자리를 만나면 쓰러지거나 절음말이가 된다. 만약 초반에 흥하고 후반이 길하면 마치 근원은 탁(濁)하나 흐름은 청(淸)한 것이고, 초반에 길하고 후반이 흥하면 대개 뿌리는 달더라도 후손이 고통스러운 것과 같다.[6]

싹의 조짐을 관찰하여, 그 근원을 살핀다. 뿌리가 싹보다 먼저이고, 열매는 꽃의 뒤에 따라온다.[6] [만민영 주석: 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입태를 근본으로 하고, 월을 싹으로 하고, 일을 꽃으로 하고, 시를 열매로 한다. 뿌리를 관찰하면 싹을 알 수 있고, 꽃을 보고 난 후에 열매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성현들이 먼저 조짐을 관찰한 것으로, 싹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그 근원을 관찰하면 곧 그 싹의 후손들을 알 수 있다. 서자평이 말하기를 길흉의 내부 운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근원의 승폐부터 살피고, 근원이 귀하면 곧 운도 귀하게 임하여 반드시 귀하게 된다. 근원이 재물이 있으면 곧 운도 재물에 임하여 재물이 발하게 된다. 근원이 재양이면 운도 재양으로 임하여 재양을 생하는데 그 설명이 역시 통한다.]

“根在苗先 實從花後(근재묘선 실종화후)”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특별히 그 근거에 대한 부연설명

은 없다. 만민영의 주석에 보면 “이것은 성현들이 먼저 조짐을 관찰한 것으로……” 정도가 근묘화실이라는 비유법에 대한 시원을 적어 놓은 글귀이다. 특별한 내용은 없이 그냥 경험에 의한 귀납적 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 2.4 『연해자평』의 궁위론

서승의 『연해자평』은 서자평의 학설을 가장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기록한 자평명리학의 제2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또한 궁위론을 연월일시 4기등을 각각 근묘화실(根苗花實)에 비유하여 궁위별 해석을 하였다. 뿌리에서부터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순서에 비유하여 연주는 조상의 궁으로서 뿌리가 되고, 월주는 싹으로서 부모궁이 된다. 일주는 꽃으로서 자신이 되고, 시주는 열매로서 자식을 암시함으로써,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순환의 연결고리라고 하였다.

일간을 위주로 한 법에 세 가지 요긴한 방법이 있으니, 천간은 하늘이 되고 지지는 땅이 되며, 지지 중에 소장된 것을 인원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또 사주를 분석하면 연은 뿌리가 되고, 월은 싹이 되며, 일은 꽃이 되고, 시는 열매가 된다. 사주를 가리는 방법 중에 년은 조상(祖上)이 되는데 세대(世代)와 종파(宗派)가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알고, 월은 부모가 된즉 부모덕과 명리(名利)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일은 자신이 되는데 당연히 그 간(干)을 팔자에 대조하여 내외 생극(生剋)의 근원으로 삼는다.[7]

『연해자평』 <월령(月令)>편에는 “예컨대 년주가 근본이 되는바 년주에 관성이 있으면 관성과 인수(印綬)는 관직(官職)과 귀명(貴命)과 명예(名譽) 등을 표하는 길신(吉神)이므로 조년(早年)에 관직요로에 나아가고 조상의 가문이 좋으며, 월주는 제강(提綱)이 되는 바 관성과 인수가 있으면 강개심이 많고 총명하여 고귀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시주는 평생의 행실을 뜻하는 것이니 길신을 생왕(生旺)해 주고 흉신(凶神)을 제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월령에 용신이 있으면 부모의 힘을 얻을 것이며 시주에 용신이 있으면 자손의 도움을 얻을 것이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관인(官印)과 사주별 궁위를 통해 가문

과 부귀명예, 총명함과 심성(心性) 등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억에서 멀어진 오래된 과거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시간적인 해석,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가풍(家風)이나 고향의 환경,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외부와의 적응능력,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위치나 방향,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물건의 소재,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사항 등 연월일시의 궁위별 해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2.5 『적천수』의 궁위론

유기(劉基)는 『적천수』의 마지막 장 <정원(貞元)> 일문 주석에서 연월일시의 네 기둥에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루고 완성되는 근본 원리를 말하는 ‘원형이정’에 비유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원문] 造化生生不息機，貞元往復運誰知，有人識得其中數，貞下開元是處宜。

조화(造化)란 생하고 생하며 쉬지 않고 작용하니 정원(貞元)의 왕복하는 운을 누가 어찌 알겠는가? 그 중에 수비(數秘)를 깨우쳐 알아낸 사람이 있다면 정하개원(貞下開元; 元에서 열리고 貞에서 마무리)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마땅하다.

[원주] 年柱를 원(元)이라 하고, 月柱를 형(亨)이라고 하며, 日柱를 이(利)라고 하고, 時柱를 정(貞)이라고 한다. 연월이 길하면 전반부의 반평생이 길하고, 일시가 길하면 후반부의 반평생이 길하다.[3]

원주에서는 이어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대운으로 본다면 처음 15년을 원(元)으로 삼고 다음 15년을 형(亨)으로 삼고 중간 15년을 이(利)로 삼고 뒤의 15년을 정(貞)으로 삼으니, 원형(元亨)의 운이 길하면 앞의 반평생이 길하고 이정(利貞)의 운이 길하면 뒤의 반평생이 길한 것이니 모두 정원(貞元)의 도라고 하였다. 여기서 원(元)은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소년기에, 형(亨)은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인 청년기에, 이(利)는 만물이 결실을 이루는 가을에 해당하는 중년기에, 정(貞)은 만물이 완성되는 겨울인 노년기에 비유할 수 있다.

훗날 청대 건륭제 38년(1773년)에 태어난 임철초가 『적천수천미』를 저술하며 이 부분에 주석을 단 내용을 살

펴보면 “정원의 이치는 하도와 낙서의 뜻이다. 하도와 낙서의 뜻은 곧 선후천 괘위(卦位)의 변화인데, 선천의 괘는 건은 남쪽이고 곤이 북쪽이므로, 서북에 산이 많아서 곤륜이 산의 조종이 되고 동남에 수가 많아서 대해가 수의 귀착지가 되는 것이니…(중략) 이 때문에 정원의 도는 순환의 이치이니 성함이 극에 이르면 쇠하고 막힘이 극에 이르면 열리는 것이 또한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였다.

『적천수』에서는 궁위를 ‘원형이정’의 사상으로 설명을 하였고, 후대인 임철초는 이를 하도와 낙서, 그리고 주역 괘(卦)의 순환의 원리를 통하여 궁위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점은 추후 궁위론 연구에 참고할 사항이다.

## 2.6 『자평진전』의 궁위론

심효침의 『자평진전』에서는 궁(宮)에 용신과 육친을 배합하여 논의하였는데 궁위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육친(六親)이 있는데, 이것을 팔자에 배합하는 것도 또한 명(命)에 있는 것이다. 궁분(宮分)을 근거로 하여 육친을 배합하는 경우 연(年), 월(月), 일(日), 시(時)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조(祖), 부(父), 처(妻), 자(子)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배정하는 것이다. 그 자리를 가지고 서로 배합해 보면 틀림없이 마땅함을 이루니 이는 변하지 않는 자리가 된다.[8]

근대에 들어와 서학오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한 내용을 보면 “궁이란 지지를 말함이다. 년지가 조상궁(祖上宮)이 되고, 월지가 부모궁(父母宮)이 되며, 일지가 처궁(妻宮)이 되고, 시지가 자손궁(子孫宮)이 된다. 위에서 서부터 아래로 지지의 지위를 배정하게 된다. 희신과 용신이 년월의 지지에 모여 있으면 조상과 부모의 은덕이 반드시 두터울 것이고 어릴 때 좋을 것이다. 희용신(喜用神)이 일지에 모여 있다면 처덕이 있을 것이고, 희용신이 시지에 있다면 자손이 필히 창성하고 만년이 좋은 것이다. 년은 출신(出身)의 구역이고, 시는 귀속(歸宿)하는 곳이다. 출신이 좋으면 조상과 부모의 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결말이 좋으면 자손의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이는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9]라고 하였는데 궁위를 지지로 한정하여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조상궁, 부모궁, 처궁, 자손궁이라고 하고 있어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들

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궁위는 천간과 지지의 공간적 위치와 연월일시의 시간적 위치의 배합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평진전』에서는 사주팔자 속 천간과 지지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 추상적 상징을 많이 배척하고 훨씬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주명리를 해석할 때 천간은 지지의 조합과 통근(通根) 여부를 살펴보고 지지는 천간에 투출(透出) 유무 등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뿌리가 없는 천간은 무늬만 있는 것과 같아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행동이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반대로 천간에는 없으나 지지에만 있는 경우는 물질적이거나 사리사욕에 따라 많이 움직이고 또는 정신적으로 발달되지 않고 육체적이거나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즉, 천간이 통근하지 못하거나 지지가 투간(透干)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 몸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 그 배합을 잘 관찰하라고 하고 있다.

하나의 팔자를 입수하면 반드시 천간을 살피고 지지를 살피고 상하를 통괄하여 살펴야 한다. 지지는 천간의 생지(生地)이고 천간은 지지의 발용(發用)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명중(命中)에 甲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寅·亥·卯·未 등의 네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하니, 한 글자라도 있으면 모두 甲木의 뿌리가 된다. 명중에 하나의 亥字가 있으면 연월일시 네 개의 천간을 두루 살펴서, 壬이나 甲 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壬이 있으면 亥는 壬의 록(祿)이 되니 壬水로 쓰임을 드러낸 것이며, 甲이 있으면 甲은 亥가 장생이 되므로 甲木으로 쓰임을 드러낸 것이 된다. 壬과 甲이 함께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는 록(祿)을 뿌리로 삼고, 하나는 장생(長生)을 뿌리로 삼아 두 가지를 다 쓰는 것이다. 운(運)을 취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마땅히, 본명(本命) 팔자(八字)를 가지고 천간과 지지마다 배합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8]

### 3. 심성의 공간심리와 사회성

궁위론에 대한 가장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 사람은 <과학명리>라는 책을 저술한 김기승(2016)이다.[10] 그는 궁위(宮位)라는 고전용어 대신 공간(空間)이라는 더 의미전달이 쉬운 용어를 선택하였다. 심성이 일간을 제외한 7개의 위치(공간)에 따라 각각 다른 심리성과 사회

성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심성의 작용을 ‘심성의 공간심리’라고 칭하였다. 그 공간에 놓인 심성이 격과 화신에 해당하고 건실하다면 자신에게 보다 능률적인 공간심리로 나타날 것이고, 기신에 해당한다면 반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연의 간지를 사회공간과 의지공간으로, 월의 간지를 목적공간과 안정공간으로, 일의 간지를 자아공간과 현실공간으로 시의 간지를 목표공간과 미래공간이라고 지칭하면서 각 심성에 따른 공간심리를 정의하고 있다.

〈표 2〉 비견(比肩)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주체적 개성심리	주인공	우호적 인맥과 희생적 자아주체심리	사회적 인맥유대와 자아공조심리
보장된 가치 평가를 통한 미래 구상심리	현시적 욕구에 의한 자기만족심리	조직결속을 통한 자아근성의 만족심리	사회적 연대속 자아발전 추구

〈표 3〉 겁재(劫財)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대외적 안정과 명분 지향의 의협심리	주인공	명분의 희생과 동정을 수반한 주체심리	경쟁에 강요된 자기보호의 본능심리
미래지향적 후견인 기대심리	주종관계의 동질성과 측근의 협력심리	정의와 공익의 명분을 위한 희생심리	동질감이 상실된 이질적 부조화심리

〈표 4〉 식신(食神)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생산적인 자아의 미래상 추구심리	주인공	안정과 여유 추구로 진보적 획득심리	사회적 진보성과 경제보장의 안정심리
미래적인 안정과 풍요의 추구심리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는 심리	고유 특기의 사회생활과 풍요추구심리	낙천주의적 생활유지의 요구심리

〈표 5〉 상관(傷官)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영원한 자유의 갈망과 개성추구 심리	주인공	감각적인 모방을 통한 창의성 활용심리	영리한 두뇌 활용과 보편성의 적대심리
물질과 육체적 욕망 갈망 심리	고정 관념 탈피한 자신만의 스타일 추구	언변 활용 한 경제 활동과 일상 탈피심리	내적으로 잠재된 반발 심리와 변혁심리

〈표 9〉 정관(正官)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명예의 지속성을 요하는 권리 추구심리	주인공	권한의 정당성에 의한 사회적 안정심리	정통성 기조로 하는 사회 활동 추구심리
안정 기조로 하며 현실 유지의 기대심리	신임 책임을 선택하는 도덕적 가치심리	공공 이익을 중시하는 안정지향 심리	사회 배경의 자긍심과 자부심 선정심리

〈표 6〉 편재(偏財)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동요에 의한 탐욕과 물질 투기 심리	주인공	과욕 성취의 도전과 능동적 흥미심리	불안정을 제한수한 재정적 확대 심리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 추구 심리	기득권의 경제 활동과 재물 소유 심리	사업가적 기질과 경제 활동의 주도심리	안전한 보호망 속 경제영역 확보 심리

〈표 10〉 편인(偏印)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차별화된 상상력과 고독 자폐 심리	주인공	독특한 외국적 반향과 특유성 사고심리	비현실적인 세계로의 도피 심리
업세주의 사고와 미래 다변적 공상심리	이원적인 현실 수용과 특이한 응용심리	교육 문예방면의 신비주의적 접근심리	종교 문화를 수용하는 예술적 심취심리

〈표 7〉 정재(正財)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절도 있는 경제 생활 재물 계승 희망심리	주인공	현실적 경제 활동을 통한 안정 추구심리	안정과 풍요 실리적 경제 활동 추구심리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안정 추구 심리	물질적 대면 활동과 정직성의 고착심리	정확성과 신용의 사회적 기반 수행심리	경제적 기반으로 인한 안정감 영위심리

〈표 11〉 정인(正印)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보수적 지속적인 자기 개발 욕구 심리	주인공	전통성 수용과 대의와 이론적 의존심리	계승적 지식 축적 안정된 사회적응심리
자아존재감의 지속 기대 심리	현실적인 이론의 수직적 응용 심리	본성적 이론의 틀 구축 안정적 수용심리	조건 없는 사랑 혜택과 자아의 존심리

〈표 8〉 편관(偏官)의 공간심리

時	日	月	年
사회 종적 구조 추구 강박 관념 이탈심리	주인공	책임과 사명감을 동반한 권력 추구심리	권위의 식과 살신성인 정신의 기반심리
외적 압박을 수용하는 인내심 응집심리	담백한 책임감 시련 극복하는 도발심리	독행자의 고뇌와 지배 구조의 균중심리	절제와 통제 속의 내면적 사회 구조 추구

위치(공간)에 따른 각각 심성의 사회성은 공간심리의 확대 혹은 더욱 디테일해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의 상관의 심리성이 '영리한 두뇌 활동과 보편성의 적대심리'인데 사회성은 '항상 언행의 예리함으로 주변을 긴장시키며, 사건이나 사물의 이면을 보는 영리함의 소유로 독특한 사업을 추진하여 재물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였는데 고전 궁위론을 1단계 심리성으로 2단계 사회성으로 확장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10]

## 4. 궁위론의 근거 추론

### 4.1 궁위론 원리 가설

명리학의 여러 고전 중 『이허증명서』,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연해자평』, 『적천수』, 『자평진전』에 나타난 궁위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궁위론에 관한 내용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리학의 기본원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명리학 이론 중, 예를 들어 12운성, 신살, 납음오행 등은 반론이 제기되고 명리학자들의 논쟁과 귀납적 증명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에서 제외되는 기로에 선 이론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연월일시 사주 4기둥을 조상, 부모, 부부, 자식 및 인생 행운(行運)의 시간적 배분으로 인식하는 궁위론은 다수의 일반화된 이론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고전들에 기록된 궁위론에 관한 내용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궁위론의 근거에 관한 내용은 빈약하다. 『낙록자삼명소식부주』의 만민영이 쓴 주석에서 “이것은 성현들이 먼저 조짐을 관찰한 것으로”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식과 경험의 수준이 아주 높은 전문가의 통찰력을 이론 수립의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

명리학자들 중 궁위론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한 사람은 『적천수천미』를 저술한 임철초 선생이다. 『적천수』에서는 궁위를 ‘근묘화실’ 대신 ‘원형이정’ 사상을 통해 설명하였고, 임철초는 이를 하도와 낙서, 그리고 주역 괘(卦)의 순환의 원리를 통하여 궁위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나간다.

정원(貞元)의 이치는 하도와 낙서의 뜻이다. 하도와 낙서의 뜻은 곧 선후천 괘위(卦位)의 변화인데, 선천의 괘는 건은 남쪽이고 곤이 북쪽이므로, 서북에 산이 많아서 곤류이 산의 조종이 되고 동남에 수가 많아서 대해가 수의 귀착지가 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수는 산으로부터 나오고 산은 수를 만나면 멈추는 것이다. 저 구하(九河)가 땅에 쏟아져서 깊고 넓고 세차게 흐르는 기세를 다하는 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성수(星宿)이며 저 오악(五岳)이 하늘을 찌르면서 높고 성하고 험준한 형상을 다하는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 모두 곤륜산이니, 사람에게 조부가 있는 것도 역시 그와 같아서 비록 가계가 나뉘고 줄기가 퍼져 나갔더라도 모두 한줄기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음(一陰)은 곤(坤)의 처음에서 생기고 일양(一陽)은 건(乾)의 맨 앞에서 생기니, 이 때문에 이(離)는 일(日)의 체가 되고, 감(坎)은 월(月)의 체가 되며, 정원(貞元)의 이치는 납갑에 근원하는데, 납갑의 상은 팔괘에서 나왔으므로 건(乾)을 아버지로 하고 곤(坤)을 어머니로 하며 진(震)을 장남으로 하여 건부(乾父)의 체를 계승하고 곤모(坤母)의 조짐을 이어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음(太陰)은 매월 28일부터 초이틀까지는 달빛을 다한 그믐으로 곤(坤)의 상을 이루니 곤(坤)은 정(貞)의 의미와 같으며, 초사흘은 광명이 삼분으로 일양이 처음 생기는 진(震)의 상이니 진(震)은 원(元)의 조짐이며, 초팔일은 상현으로 광명이 육분이고 태(兌)의 상이니 태(兌)는 형(亨)의 이치와 같으며, 십팔일은 달이 찼다가 삼분이 떨어져 나가는 손(巽)의 상이니 이(利)의 뜻과 같다. 이 때문에 정원(貞元)의 도는 순환의 이치이니 성함의 극에 이르면 쇠하고 막힘이 극에 이르면 열리는 것이 또한 이러한 뜻이다.[11]

임철초 선생이 제시한 궁위론의 근거는 선천팔괘 남북의 건(乾), 곤(坤)이 후천팔괘 남북의 이(離), 감(坎)으로 바뀌는 변화의 포인트를 주요하게 생각하였고, 팔괘의 진태손곤(震兌巽坤)이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조짐 혹은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 순환의 이치와 생극성쇠(生剋盛衰)가 사주명리의 원리이며 궁위론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4.2 근거 추론

하나의 일반화된 원리는 두 가지 원천에서 온다. 하나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일상적 관찰을 통해 모이는 자료를 근거로 한 귀납적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이론에서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과정이다. 과학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는 후자가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모든 가설은 그 가설이 수립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근거가 불완전한 가정이거나 불확실한 추측을 가설 수립의 근거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정은 하나의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과정 때문에 다른 여러 요인을 무시하게 될 수 있으며, 추측은 가설 수립을 하는 연구자의 직관이나 주관적 지식, 정보로 인하여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설이 검증을 통해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귀납적 과정과 연역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역적 과



정의 대표적인 근거는 이미 검증된 이론(Theory)이나 원리(Principle)를 활용하는 것이며, 지식과 경험의 수준이 아주 높은 전문가의 통찰력(Insight)에 의존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귀납적 과정의 대표적 방법은 통계(Statistics)와 사례연구(Case Study)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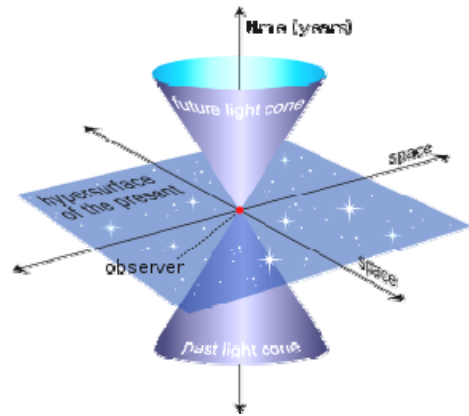
『적천수천미』에서 임철초 선생이 제시한 궁위론의 근거는 『주역』이라는 이미 검증된 이론을 활용하였고, 본인(전문가)의 통찰력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연역적 방법이었다. 하지만 『주역』이 백이면 백, 모두 인정하는 자명한 진리인가 하는 문제점을 내재하고는 있는 근거 추론이다. 연구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궁위론의 근거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한 인간의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시간이다. 첫 번째 기둥 연주는 60년이라는 시간의 순환 사이클 중의 하나이며, 두 번째 기둥 월주는 월건(月建)이라 부르며 간지기월법을 통해 구분해 놓은 60갑자 월 중의 하나이며, 세 번째 기둥 일주는 일진(日辰)이라 부르며 순환하는 60갑자 일 중의 하나이며, 네 번째 기둥 시주는 하루의 12분의 1에 해당하지만 간지기시법을 통해 구분해 놓은 60개의 순환 시간 중 한 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연월일시의 4분위는 60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의 사이클에서 하나의 구간이 다시 월로, 그 월이 다시 일로, 다시 시간으로 계속 쪼개져서 작아지고 있다. 사주에서는 시간 단위까지만 구분해 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분초까지 더욱 쪼개져서 내려가면 하나의 점으로 시간은 귀결하게 된다.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는 그 시간의 포인트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시각에 우주의 에너지를 수용하게 된다. 그 점의 포인트에서 인간에게 기록된 우주 인자는 그 점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오며 다시 과거의 시간의 크기만큼 확산되며 그 사주체 인간의 운의 행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고전 기록에서 체(體)와 용(用)이 바뀌는 포인트가 그 시각의 점을 통과하며 바뀌는 것이며, 앞서 임철초가 지적한 선천팔괘가 후천팔괘로 바뀌는 포인트가 바로 인간이 탄생하며 과거의 시간의 행로가 투영되어 시간의 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시간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시간의 스펙트럼 현상 혹은 왜곡현상은 아직은 가정의 단계이지만 평행우주 이론에 대한 가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평행우주에 대한 많은 가정이 있지만, 기본가설은 우

리가 서 있는 현재를 하나의 점으로 볼 때 시간의 타임라인에서 과거와 미래는 그 점을 통과하여 원뿔 형태로 위아래로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과거와 미래의 변동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재는 하나이지만 과거와 미래는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이다.[12] 평행우주에 대한 우주 탄생론의 연구는 물리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러한 ‘시간의 스펙트럼’ 현상이 우주 탄생론뿐만 아니라 지구 내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도 협의의 시간 스펙트럼 현상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과거 시간의 흐름이 미래 인간의 삶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연월일시의 원뿔형 과거가 탄생 시점을 통과하며 다시 미래의 연월일시를 구성하면서 연주(年柱)가 초년 운에 투영되고 월주(月柱), 일주(日柱)가 점점 원뿔 형태로 확장되며 시주(時柱)가 사주체의 말년을 투영하는 시간의 스펙트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평행우주의 월드라인

지금까지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과정을 통해 궁위론의 근거를 찾아가 보았다. 고전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고, 그 중 임철초 선생의 궁위론에 대한 견해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더불어 연구자가 가정해 본 ‘시간의 스펙트럼’ 현상이 궁위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도 펼쳐 보았다. 하지만 고전의 기록들은 앞선 성현들이 그들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워놓은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보만 보였으며, 다른 이론들을 근거

로 삼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표준모델로 삼은 이론들의 근거가 불완전한 것이거나 불확실한 것이면 이를 통해 궁위론의 근거로 삼는 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궁위 인식에 관한 연구는 연역적 추론과 더불어 앞으로 귀납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귀납적 연구의 대표적 방법인 통계(Statistics)와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반하여야 한다. 올바른 방법과 도구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통계자료는 가설 수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에는 항상 일정 부분의 오류가 숨어 있다는 점과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례연구는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와 검증되었던 가설을 참고로 하여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것인데 명리학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연구방법론이다.

## 5. 결론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인간의 명을 살피는 학문, 즉 사주명리학의 시작은 선대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통찰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서양의 귀납적 사고와 대조적으로 동양의 연역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인데 동양의 여타 많은 학문적 고찰을 통해 비교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이론은 귀납적 인식을 통해서 모여진 결과물이기도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귀납적 경험의 수집이 가능한 사유를 <뇌의 안테나 기능>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의 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능들이 수없이 많고 뇌과학 분야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신생아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이든 생명이 없는 물상이든 간에 인간과 교감하게 되는 많은 음양오행의 존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뇌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 기능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시점에 자궁 밖으로 나오면서 양수의 보호와 탯줄의 연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때 전 우주에 분포되어 있던 그 순간의 음양오행 에너지 분포가 감각을 통해서, 혹은 감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파동이나 에너지 형태로 태아에게 일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그 시점의 에너지 분포 형태로 순수한 태아의 전

신에 영향을 주며, 특히 민감한 뇌세포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한 신체적, 정서적 정체성을 이루고, 이는 성장을 하면서 좀 더 큰 작용으로 나타나 한 인간의 특성을 결정짓게 된다.

그래서 태어나는 바로 그 시점의 에너지 분포를 알 수 있으면 태아의 성장 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몸에 각인된 태어나는 순간의 에너지 분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시간 속의 우주 음양 에너지 분포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한 길흉화복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태어나는 시점의 음양오행 에너지 분포를 앞으로써 한 인간의 정체성과 생애 주기의 길흉화복을 예견할 수 있는 일, 바로 이것을 명리라 부르는 것이다. 이 순간도 태양과 달과 오행성의 에너지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지구의 생명체 중 가장 민감한 세포와 감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에게 강하게 미치는 행성 에너지 분포를 육십갑자 도구를 출생 시점에 적용하여 측정한다.

사주를 구성하는 내재적 사상은 음양오행이며, 기록하는 글자는 십간십이지이고, 시공의 자리를 담당하는 요소는 천간, 지지 그리고 4개의 기둥으로 엮인 궁위(宮位)이다. 이번 궁위 인식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인간이 탄생하는 시점, 즉 우주의 에너지가 뇌와 온몸에 포맷되는 그 순간에 과거의 시간과 정보가 시간의 점을 통과하고 스펙트럼처럼 확산되며 미래의 시간과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시간의 스펙트럼' 현상을 궁위론의 근거로 제시해 보았다. 임철초가 '원형이정'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한 선·후천팔괘의 변화 포인트와 현대 우주론 중 하나인 평행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현재를 투과하고 있는 두 원뿔형의 시간 변화 혹은 왜곡이 미래의 우주에 잔상을 남긴다는 가정을 궁위론의 연역적 근거로 삼아 논의해 보았다. 수천 년 명리의 원리로 인식되어 온 궁위론이 결코 가설이 아닌 귀납적 원리라는 점과 이를 향후 통계학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이 고찰의 의의를 둔다.

## References

- [1] 김용옥, 『도올주역강해』, 통나무, 2022.
- [2] 이성엽, 『사주명리의 궁위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기대 문화예술대학원, 2013, p.26.
- [3] 陳素庵, 『滴天髓輯要』, 武陵出版社, 1999. <貞元>三元皆有貞元, 如以八字論, 則年爲元, 月爲亨, 日爲利, 時爲貞, 年月吉者, 前半世吉, 日時吉者, 後半世吉.
- [4] 이석영, 『사주침경』 권1, 한국역학교육학원, 1969, p.212.
- [5] 이허중 저, 김정혜·서소옥·안명순 역, 『이허중명서』, 이담북스, 2012. 元命勝負三元者 干祿支命納音身 各分衰旺之地. 干主名祿貴權 爲衣食受用之基. 支主金珠積富, 爲得失榮枯之本. 納音主材能器識, 爲人倫親屬之宗.(pp.107-108) 四柱者胎月日時. 胎主父母祖宗者十分 主事者二分. 月主時氣者十分 主事者六分. 日主未得氣者十分 主事者八分 時主用度進退向背力氣勝負皆十分 吉與凶同.(pp.110-112) 大抵年爲本則日爲主 月爲使則時爲輔. [年爲日之本 日爲命主. 如君之有臣 父之有子 夫之有婦 國之有王. 是胎月生時爲主本之扶援 欲得以序相承順也.](p.114 [ ]안의 내용은 이허중의 주석)
- [6] 문종란 역,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이담북스, 2018. 或若生逢休敗之地. 早歲孤窮. 老遇建旺之鄉. 臨年偃蹇. 若乃初凶後吉. 以源濁而流清. 始吉終凶. 類根甘而裔苦.(pp.58-59) 觀乎萌兆. 察以其原. 根在苗先. 實從花後.(p.61)
- [7] 서승 저, 심재열 역, 『연해자평정해』, 명문당, 2002. 撰日之法, 有三要, 以干爲天, 以支爲地, 支中所藏者, 爲人元, 乃分四柱, 以年爲根, 月爲苗, 日爲月爲苗, 日爲花, 時爲果. 又撰四柱之中, 以年爲祖上, 則世代宗派盛衰之理, 月爲父母, 則知親廢名利有無之類, 以日爲己身, 當推其干搜用八字, 爲內外生剋取捨之源.
- [8] 심효철 저, 김기승·나혁진 역, 『산음 자평진전』, 2021. 人有六親, 配之八字, 亦存於命. 其由宮分配之者, 則年月日時, 自上而下, 祖夫妻子, 亦自上而下. 以地相配, 適得其宜, 不易之位也. / 故凡一八字到手. 必須逐干逐支. 上下統看. 支爲干之生地. 干爲支之發用. 如命中有一甲字. 則統觀四支. 有寅亥卯未等字否. 有

一字皆甲木之根也. 有一亥字. 則統觀四干. 有壬甲二字否. 有壬, 則亥爲壬祿. 以壬水用. 有甲. 則亥爲甲長生, 以甲木用. 有壬甲俱全. 則一以祿爲根. 一以長生爲根. 二者並用. 取運亦用此術. 將本命八字. 逐干逐支配之而已.

- [9] 서락오 저, 박영창 역, 『자평진전평주』, 신지평, 1999.
- [10] 김기승, 『과학명리』, 다산글방, 2016, p.335.
- [11] 임철초 저, 김동규 역, 『적천수천미』, 명문당, 2002, pp.733-735.
- [12] 미치오 카쿠 저, 박병철 역, 『평행우주』, 김영사, 2006.

### 신 순 옥 (Shin, Sun-Ok)



- 2011년 2월 :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12년 2월 : 서울사이버대 심리학과 (심리상담사)
- 2015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18년 8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관심분야 : 명리학, 타로, 별자리, 아로마, 관상, 명상, 치유
- E-Mail : leif3713@hanmail.net

### 나 혁 진 (Na, Hyeok-Jin)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 2004년 2월 : 시드니공과대학 정보기술학과 (Graduate Diploma)
- 2017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명리학, 명리고전, 점성학, 민속학
- E-Mail : peter750504@mail.ube.ac.kr